

News

5월 기업 체감 경기 소폭 반등, 제조업 ↓ 비제조업 ↑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0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5월 전 산업의 업황실적 B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한 53로 집 제조업 업황실적 BSI는 3포인트가 하락한 49를 기록... 지난 2009년 2월 43이 후 가장 낮은 수준...중소기업은 4포인트가 하락한 41을 기록...2009년 수준

하나銀, 2차 소상공인대출 금리 2.9% '파격'...시중은행 '좌불안석'

파이낸셜뉴스

지난주부터 사전 접수가 시작된 2차 소상공인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게 책정된 가운데 하나은행이 파격적으로 최대 연 2.9%에 공급하자 나머지 은행들 당황... "2차 대출의 경우 이차보전대출과 달리 보증서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이었던 이차보전대출보다 안정적...금액도 1000만원으로 적어졌기 때문에 부담이 덜해..."

'케이뱅크 최대주주' 앞둔 비씨카드 회사채 1천억원 발행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가 될 예정인 비씨카드가 17년만에 회사채를 발행 관계자, "회사채 발행은 케이뱅크 지분 인수계획 발표 전부터 추진된 사안...케이뱅크 지분 인수는 앞서 밝힌대로 마스터카드 지분 매각으로 조달 가능..."

카카오·삼성화재, 디지털손보사 합작 무산

한국경제

지난해 가을부터 보험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삼성화재·카카오 합작법인' 설립이 백지화...온라인 후보험 판매 놓고 이견... 카카오는 독자적으로 손해보험사 설립을 추진하되 삼성화재와 우호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보험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하기 위한 협력은 계속될 것"

기준금리 추가 인하 땀 보험사 타격 심화

뉴시스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수준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자 금융권에도 비상 특히 보험사는 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굴려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이라 기준금리 인하 시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해외투자규제 완화법 통과됐지만 시행까지 시

'빚내서 주식투자' 관리 나선 증권사

뉴스토마토

키움증권, 신용용자 보증금 내 현금 비율 기존 7%에서 10%로 일괄 상향...신용용자 다시 10조원 넘어서는 등 38거래일 연속 증가...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 "신용거래 늘어나면 신용공여에 따른 이자 수익 있지만...증권사마다 신용용자 증가폭이 다를 수는 있지만 자기자본의 100%(종투사 200%)를 초과할 수 없어..."

증권사도 이익내기 힘들다...FX마진거래 손실률 확대

데일리안

유사해외통화선물 손실계좌비율 50% 상회... "단기 환율예측 어려워"...개인, 거액 예치금·기본 단위 부담에 사설업체 횡행...불만도 늘어나 관계자, "환율 관련 상품은 증권사에서도 작은 규모로 트레이딩하거나 거래가 거의 없는 회사도 있을 만큼 매우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

오늘부터 韓·日 등 5개국, 펀드 교차판매...운용업계는 온도차

뉴스1

금융당국, "한국 보다 펀드 시장 규모가 큰 곳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국내 운용사들이 경쟁력을 제고, 경쟁력 있는 펀드 유입에 따라 투자 선택권 넓어질 한국·일본·태국·호주·뉴질랜드, 펀드 판매 절차 간소화...대형 운용사, 판로 개척 기대...중소는 마케팅 등 어려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